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꽃살문을 응용한 패브릭 디자인 연구

- D T P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김 소 현

꽃살문 문양을 응용한 패브릭 디자인

- D T P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김 소 현

인 준 서

김소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획일화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박하지만 여유가 있었던 과거를 막연히 동경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에 비해 예술은 아직까지 가까이가기 힘든,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에는 예술적 가치가 내재되어있다. 아주 작은 생활 소품일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조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꽃살문 문양'에 주목하였다. 이 문양은 과거 한국인의 민족성과 정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더불어 현재의 예술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꽃살문 문양은 소박하고 순수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함축되어있고, 규칙과 질서를 갖추고 있어 세련된 멋과 독특한 정취를 담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꽃살문 문양은 전통적으로 공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문에 나타나 있는 단순한 문양의 개념이 아니라 화려하면서도 정감 있는 이미지를 현대적 정서와 감각에 맞게 표현하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한국적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과거에 대한 동경이 퇴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전통지향은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약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도약의 끝은 세계와 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본 론	3
1. 이론적 배경	3
1) 꽃살문의 의미	3
2) 꽃살문의 종류 및 조형성	5
3) 꽃살문 문양의 상징성	8
2. 작품 제작 및 분석	12
1) 작품제작	12
2) 작품분석	21
III. 결 론	48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편린 I, 면섬유, D.T.P, 2005	21
【작품 2】 편린 II, 면섬유, D.T.P, 2005.....	25
【작품 3】 공존 , 면섬유, 노방, D.T.P, 2005	29
【작품 4】 아름다운 날들, 면섬유, D.T.P, 2005	32
【작품 5】 소박했던, 행복했던..., 면섬유, 견섬유, D.T.P, 2005	35
【작품 6】 흐르다..., 노방, 견섬유, D.T.P, 2005	39
【작품 7】 기다립니다, 면섬유, 견섬유, D.T.P, 2005	42
【작품 8】 고향, 견섬유, D.T.P, 2005	45

도 판 목 차

- <도판 1> 정수사 대응전 꽃살문
- <도판 2> 범어사 독성전 격자 매화 꽃살문
- <도판 3> 쌍계사 대응전 꽃살문
- <도판 4> 내소사 솟을 금강저 꽃살문
- <도판 5> 남장사 극락보전 솟을 모란 꽃살문
- <도판 6> 신흥사 극락보전 꽃살문
- <도판 7> 불갑사 대응전 솟을 금강저 꽃살문
- <도판 8> 통도사 대응전 꽃살문
- <도판 9> 동학사 대응전 사군자 문살
- <도판 10> 불갑사 대응전 솟을 모란 꽃살문
- <도판 11> 성혈사 좌협간 솟을 모란 꽃살문
- <도판 12> 동화사 대응전 어간 꽃살문
- <도판 13> 내소사 솟을 모란 꽃살문
- <도판 14>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솟을 국화 꽃살문

I. 서론

1. 연구 목적

변화하는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즐기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 보다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유입된 서양문물을 통해서 만족 하려고 한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전통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한국적 미감을 상실케 하였다. 이처럼 모든 전통적인 것들이 처한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적 미의 요소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 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에 기반하여 소비자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감성의 차별화와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창적이고도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 상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꽃살문의 상징성과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진 꽃살문의 이미지를 가장 한국적이고 현대적으로 재인식하여 실용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패브릭 디자인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꽃살문 문양을 모티브로 한 본인의 작업은 꽃살문 고유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전통적인 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 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꽃살문 속에 담긴 조형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하였다.

본인의 작품 표현은 DTP(Digital Textile Printing) 방법으로 패턴을 디지털 화시켜 색 분판, 제도, 제판과정 등의 여러 공정 없이 직접 날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섬세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방법으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살문 문양과 본인의 내면에 담겨있는 정서를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하여 디자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꽃살문의 의미

한국의 고 건축에서는 대문을 제외한 모든 창과 문을 창(窓)과 호(戶)의 복합 언어인 창호란 용어로 부른다. 전통 창호는 여닫는 방법, 구성, 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공예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창호는 건축물 벽면에 설치되어 자연 공간(自然空間)으로부터 인간 공간(人間空間)으로 들어가는 입구 즉, 인간의 통로로 이용될 뿐 아니라 빛과 공기의 원활한 소통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¹⁾

창은 건물에 있어서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건물의 얼굴이라 하며 창에 나타난 창살은 그 집의 표정이라 할 수 있다.

창살은 '창의 울거미²⁾에 살을 박았다'는 행위를 복합시켜서 부여한 용어³⁾로 결국 창에 살을 메운 것을 의미한다. '살'은 창문의 울거미 안에 가로, 세로로 짜 넣은 나무의 총칭 또는 구조물에서 그 안면에 가로, 세로로 건너지른 가는 재의 총칭⁴⁾이란 뜻 이외에 골격 또는 근간(根幹), 혹은 침예하다는 뜻이 있다.

창살의 문양은 각각의 건축물에 맞게 창을 이루는 살과 그 살에 장식되는 무늬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변화되어왔다. 또한 창호의 살에는 한지를 바르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방 안에서는 거의 지각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1) 최하림, 『한국인의 멋』, p.20 (지식 산업사,1990)

2) 울거미란 창문의 가장자리 둘레에 두른 뼈대를 말한다.

3) 신영훈, 『한국의 고 문양』, p.35 (한국디자인 포장센터,1973)

4) 장인기, 『한국 건축 대계Ⅳ:한국 건축사전』, p.31 (보성출판사,1985)

외부로부터 빛이 비치면 한지를 통해 창살의 모양이 실내로 은은하게 비치 한층 아늑한 정서적으로 평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와 같이 창호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창살의 형태는 그 가옥의 분위기를 북돋아주는 구실을 한다. 또한 창살의 무늬는 길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주택에 주거하는 인가의 미적(美的) 요소나 종교적, 정신적 면을 표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문양 중에서도 꽃이나 추상문양을 새겨 장식성을 높인 것을 꽃무늬 창살, 꽃무늬 문살, 혹은 꽃살이라 하고 이 꽃살이 있는 문을 꽃살문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목수들의 손으로 가누어진 한국창살 무늬의 아름다움은 때때로 몬드리안(Piet Mondriaan, 1872~1944. 네덜란드 출신으로 추상화의 선구자)의 작품들을 능가할 만큼 세련된 면의 분할을 적잖이 보여주었다. 한국의 창살무늬가 지니는 아름다움의 차원은 사뭇 눈 맛의 후련함을 맛보게 해주는 것 뿐 아니라 은근하고 둥글고, 알세라 모를세라 모를 죽이면서 후련한 분할을 즐기고 있다.”⁵⁾ 또한 우리 창살 무늬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틀에 나타난 꽃의 모양들은 연꽃, 모란, 국화, 매화, 완자무늬 등이 있으며, 각각의 꽃들이 갖는 의미 또한 다르다. 모양이 다양한 만큼 각 문창살은 풍부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이런 까닭에 우리 목조 건축물에서 건축가의 멋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다.

5)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p.63 (학고재,2002)

2) 꽃살문의 종류 및 조형성

(1) 꽃살

꽃살은 살의 모양이 모두 꽃으로 단장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형태에 비해 조각기법이 독특하고 하나의 조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로살, 가로살과 빗살로 짜여진 문살 위에 꽃무늬를 새기거나 붙인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째로 아로새기고 투각하여 문짝을 만들어 짠 것을 말한다. 꽃살은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균형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회화적이라는 것이다. <도판 1>

(2) 정자(井字)살 꽃살 변형

세로살과 가로살을 정(井)자를 이루도록 하고 교차하는 지점에 네 잎의 꽃송이를 조각한 것으로 빗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꽃살 문양이 많기에 꽃살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이다. <도판 2>

(3) 빗꽃살

빗꽃살은 빗살의 교차점에 꽃을 조각하여 넣은 창살이다. 이것은 꽃과 잎을 구분하여 채색하고 선을 그어 명확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도판 3>

(4) 빗꽃살 변형

빗꽃살 변형은 빗꽃살과는 대조적으로 통판을 깎아 만든 기법으로 빗살 자체가 꽃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살을 비틀어서 마치 새끼를 꼰 것과 같은 형태를 지나고 있는 것도 있다. <도판 4>

(5) 솟을꽃살

‘솟을’이란 솟은 즉 돌아낸, 돋우어낸, 도드라진의 뜻으로 이 무늬 살에는 대부분 꽃이 새겨져 있어 붙여진 뜻이기도 하다.⁶⁾ 세로살과 빗살로만 이루어지되 두 빗살이 세로살 사이의 칸 가운데서 서로 만나는 꾸밈새로 한 칸 속에서 6모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짜임새는 솟을 민꽃무늬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금강저를 새긴 살이 되거나 안팎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속이 텅 빈 깊은 맛을 드러내기도 한다. <도판 5, 6>

(6) 솟을 빗꽃살 변형

솟을 빗꽃살은 꽃을 중심으로 잎이 살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솟을 빗꽃살 변형은 살 자체가 꽃모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매우 단순한 느낌을 주고, 곡선이 가져오는 율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도판 7>

(7) 빗살 변형 꽃살

빗살 변형 꽃살은 빗살에 가로살이 추가된 빗살 변형과 같은 것이나 그 위에 꽃을 조각하여 붙이고 살 자체의 전체적인 형태가 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도판 8>

(8) 꽃나무살

꽃나무살은 꽃나무를 통째로 새겨 짠 문살을 말한다. 조각 기법이 독특하고 하나의 목 조각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군자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투각하여 장식하였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병풍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며 그 표현이 민화풍의 묘사법을 보여준다. <도판 9>

6) 강순형, 관조스님 『우리문화보기② 꽃문』, p.125 (돌베개,2000)

꽃살문은 조형적으로는 입체적으로 꽃의 모양이 디자인화 되어 정교하고 단아한 멋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갖가지 색채가 첨가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 주고 있다.

꽃살문에서 보여 지는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색깔은 바탕이 되는 색이며 거기에 하양과 주홍을 함께 섞어 5색으로 문의 얼굴을 단장하고 이파리는 푸른빛이나 파란빛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물감으로 꽃무늬를 얼마나 곱고 그윽하며 밝게 보이도록 하는가에 마음을 쏟았다. 때문에 이들 물감을 가로줄로 또는 세로줄로 번갈아, 아니면 나란히 사용 하면서 도드라지도록 애썼고, 나아가서는 세모나 네모, 마름모들을 그리는 꼴로 빛깔을 올려가면서 맞추고 있다.⁷⁾

대부분 사찰의 꽃살문은 화려하게 채색되어 장엄함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만, 푸른빛으로 칠해졌거나 색이 바랜 것인지 아예 단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하지만 빛바랜 낡은 문살에서 배어나오는 오래 묵은 빛깔은 자연스러운미를 느끼게 해주어 더욱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꽃살문에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장식 요소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많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 조형적인 가치와 선조들의 예술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한다.

7) 강순형, 『꽃문: 관조스님 사진집』, p.127 (미술문화사,1999)

3) 꽃살문 문양의 상징성

궁궐이나 민가의 아(亞)자문, 띠살문 등의 단아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꽃살문은 매우 화려하다. 꽃살을 문 안에 만들어 놓음으로서 아름답고 즐거운 마음을 나타냈던 것이다. 창살에 꽃살을 만든 것은 부처님께 헌화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종교적인 상징성이나 조선시대의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나 사상이 창살 문양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꽃살의 문양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연꽃을 비롯하여 모란, 매화, 국화 등과 같은 꽃문양도 있으며 때로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념적인 형태의 꽃들도 보인다.

(1) 연꽃

연꽃은 한국 미술이나 공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무늬 중 하나이다. 청정무구, 풍요, 여성 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타의 진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예가 가장 많고, 삼국시대부터 연꽃무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불교의 전래와 함께 더욱 성행하였다. 불교에서 연꽃은 불교의 중심 꽃이며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닌 꽃으로 인식되며 연꽃은 청결, 순결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연꽃은 늪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운 뺨에서 물들지 않는 속성이 있어 이것을 불교의 교리와 연결시켜 초탈, 정화 등 관념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⁸⁾

8)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③』, p.408 (전주대학교, 2000)

(2) 모란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꽃무늬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소재이다. 모란은 탐스러운 생김새와 향기의 으뜸으로 부귀공명을 상징하며, 주로 병풍으로 꾸며 신방이나 안방을 장식하고 특히 궁중의례에 쓰여졌다. 모란꽃 문양의 출현은 연꽃보다 거의 천년 후에 나타났고, 당나라 이래 번영의 의미와 행복의 상징으로 널리 애호되었고, 송나라 때는 부귀화, 꽃 중의 왕자라고도 하였다.

(3) 매화

매화는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에 피며 보춘화(報春花)라고도 한다.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어 봄의 소식을 전하며, 맑은 향기와 우아한 신선의 운치가 있어 순결과 절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서운 추위에도 곳곳이 피는 매화의 생태가 인간의 고상한 품격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겨울이 되어 잎이 지고 나면 곧 죽을 것 같으나 다음해 다시 꽃이 피는 속성에 연유하여 장수의 상징으로도 여겼다.

(4) 국화

국화는 일반 사람들에게 맑음을 자아내고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길상(吉祥)의 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의 생태는 길상의 징조 또는 상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5) 대나무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계절을 통하여 생기가 변치 않기 때문에 군자의 풍격(風格)이나 절개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식물이다. 이런 대나무의 의미는 주로 사대부 계층에서 애호되었으

며, 일반 생활문양에서 다루어지는 대나무는 다분히 세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⁹⁾

(6) 소나무

소나무는 세 가지의 상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절의와 지조, 둘째는 탈속과 풍류, 셋째는 장수의 상징이다. 소나무가 장수의 상징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장생수(長生樹)로서의 속성을 인간사에 일치하게 대응한 결과이다.¹⁰⁾

(7) 꽃병

꽃병은 불교에서 보배가 가득 찬 병, 바라는 것이 모두 충만한 병, 상서로운 기운이 담긴 병,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병이라고 한다. 사람이 하늘의 신에게 기원하는 모든 것이 이 병에서 나온다고 하며 꽃병과 나뭇잎은 앓과 어울림을 상징한다.

우리 민족의 생활을 기반으로 생활감정이나 기호를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색채에도 그 색상의 표현이나 배열 순서에 있어 오행설이라는 일정한 법칙을 따랐고, 단청의 색채에서도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따르고 있다. 음양오행 사상의 색채체계는 동서남북(東西南北) 및 중앙의 오방(五方)으로 이루어지며,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정색(正色)이 양(陽)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오방색이라 한다. 청(靑)은 하늘의 빛, 바다의 빛, 그리고 물의 빛으로서 우리 신화의 우주론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청이 동쪽이므로 해돋이, 밝음, 맑음 등과 연관되며, 소생, 기쁨, 어짙을 의미한다. 적(赤)은 옛 사람들이 잡귀를 쫓는 색깔이라고 믿었다. 동짓날 붉은 팔죽을 문짝에 뿌려 액운을 막던 것

9) 차용준, 『전통문화의 이해③』, p.413 (전주대학교, 2000)

10) 허균,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p.142 (돌베개, 2000)

이라 던지 붉은 모래나 붉은 부적 등을 귀신 쫓는데 사용했던 것도 이러한 붉은색의 상징에 따른 것이다. 황(黃)은 풍요를 나타내며 삶에 대한 조명, 직관, 사물들을 포용하는 힘을 상징하는 색이다. 백(白)은 상서로운 징조를 표상하고, 어떤 색으로도 물을 들일 수 있으나,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는 자존의 마음을 나타낸다. 흑(黑)은 밤, 공포, 불행, 파멸, 죽음을 상징하며, 동시에 정직과 명예의 표상이기도 하다.

2.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제작

(1)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

텍스타일 디자인은 섬유, 실 원단 등을 소재로 하여 그 목적에 따라 조형 활동을 하기 위한 기획, 설계를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입체적인 형태까지 포함된 디자인 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실을 짜거나 엮는 것, 혹은 직물에 날염이나 염색을 하고 마무리 가공을 함으로써 텍스처, 패턴, 염색을 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적인 작업 공정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패턴과 색상을 선택 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디자이너의 자의적인 판단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우수한 디자인 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 디자인은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이라 할 수 없다.

(2) 트렌드 분석

◎ 2003년 ~ 2005년도 트렌드 분석

	2003년	2004년	2005년
이 미 지	활기있고, 재미있는, 젊음, 스포티	여성적인 부드러움 로맨틱, 편안함, 고전적 재 창조	고요함과 깨끗함, 테크노, 스포티, 밝음
패 턴	즐거운패턴, 화려하지 않고 잔잔한 문양, 입체감이 돋보임, 과감한 사선과 기하학적 무늬	추상적인 형태, 회화적으로 줄이 그어진 텍스추어, 낡고 손상된 소재나 잘못된 염색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소재를 의도적으로 잘못 다루는 기법	손으로 그린 듯한 스트라이프, 번지는 듯한 수채화, 여러 가지 감각 혼합
컬 러	상호 대비의 조합, 원색컬러, 하이테크 컬러, 밝은 회색	가벼운 음영와 눈부신 화이트, 빛이 바랜 컬러, 파스텔 컬러, 오렌지색	자연적인 컬러, 밝고 경쾌한 컬러, 연두색

● 2006년 S/S 트렌드 분석

2005년도 트렌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과 우울하고 힘든 사회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인지 밝고 화사한 디자인과 색상들을 선호 했다. 즉 현실의 불투명성, 위험성이라는 요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결합되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갈구하게 되고 간절한 소망 하에 과거에 대한 향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밝고, 생생한 컬러들은 2006년 S/S 트렌드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6년 S/S 에는 지난 시즌까지 강세를 보이던 트위드처럼 텍스처가 강한 소재들이 줄어드는 대신 면 이나 린넨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내추럴한 소재들이 다시 등장한다. 또한 유연한 실루엣을 강조하는 새틴, 실크 저지, 오리엔탈 감각의 자카드 소재가 다양한 스타일로 제안된다.

이에 본인의 작품에서는 면과 실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추럴 함은 물론 실용성과 대중성까지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2006년도 S/S에서는 Garden Party-종이를 오려 낸듯한 정교하며 깨끗한 윤곽선을 가진 그래픽 스토리,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배열한 그래픽 플로탈 & 스트라이프 패턴과 Renewed Classic-클래식한 감성의 패턴은 정교하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전개된다.

꽃살문 문양과 당초문양의 조화롭고 은은한 컬러와 함께 규칙적이며 자연스러운 패턴에 페미닌 스타일의 패턴과 깨끗한 컬러감의 텍스처 패턴 등 모던한 패턴을 사용하여 2006년 S/S 트렌드에 적용 시켰다.

주 칼라는 갈색(Trial Brown), 이국적 느낌의 밝은 색(Exotic Bright). 파우더 파스텔 색(Powder Pastel), 금속성광택이 나는 색(Metallic) 등이 2005년도 S/S 컬러의 경향 이었다면 이번 2006년 S/S 시즌 컬러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믹스(Culture Rhapsody)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해내는 트렌드가 최고조에

다다른다. 또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로맨틱시즘은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소박한 자연주의와 결합(Cozy Romance)해서 전원적인 무드를 이끌어 간다.

꽃살문은 이런 이유에서 2006년 S/S 트렌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고, 단아함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은 세계를 향해 우리문화를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

2006년 S/S 시즌의 전반적인 컬러는 수채화의 청명함을 연상시키는 Clean & Bright 스토리로 전개된다. 화이트를 머금은 파스텔 색(Pastel), 흰색(White)에서 밝은 회색(Bright Grey)로 이어지는 뉴트럴 색(Neutral)으로 투명하고 순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파란색(Blue)과 녹색(Green)의 연합으로 탄생한 아쿠아 녹색(Aqua Green) 계열은 이번 시즌의 메인 컬러로 등장한다. 한편 연두색(Yellowish Green)과 코랄색(Coral)의 강세가 지속되고, 보라색(Purple)의 영향을 받은 남보라색(Blue-Purple)과 와인색(Red-Purple)의 활용도가 증가한다. 에스닉한 느낌을 주는 갈색(Brown)과 밝은 컬러에 정돈감을 주는 검정색(Black)이 강조된다.

2006년 S/S 컬러는 자연개통의 색들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런 색깔들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예전에 복고를 한 번 더 유행시킬 듯하다.

1. Bi-Elegance : 우아한 클래식 무드와 메트로 감각의 혼합이 돋보이는 테마. 풍부한 관능미와 절제된 장식적인 요소는 남성적 우아함과 여성적 우아함 사이에서의 미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변하지 않는 클래식의 깊이는 오래된 패션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끌어낸다.

2. Sweet Memories : 이국적인 환상과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꾸밈없는 순수함을 풀어내는 로맨틱 스토리. 내추럴의 영향을 받은 로맨틱 무드는 오리엔탈 뉘앙스&포클로릭¹¹⁾ 터치로 새로운 전원생활과 낭만적인 히피 스타일로 재해

11) 동유럽의 민속복과 같이 슬림한 실루엣과 웰빙의 물결을 타고 온 쾌적한 코튼소재로 톤 다운된 자수 펠팅

석된다.

3. Cultural Affair : 헤진 여행가방, 낡은 티켓, 문명전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부족의 마을, 정열적인 축제의 떠들썩함, 골동품 가득한 벼룩시장의 추억은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한다. 다양한 문화적 영감은 자연을 배경으로 더욱 풍부해지며, 상상력을 자극하여 다양한 패턴과 장식적인 표면효과를 지닌 소재를 만들어낸다. 자연스러운 질감과 표면효과의 린넨 터치,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식적인효과 등이 돋보인다.

4. Happy Hour :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자유로운 감성으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감과 행복을 만끽한다. 일상을 벗어난 짧은 휴가, 익숙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운 한때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경쾌하게 풀어내는 즐거운 시도를 즐긴다. 실용성을 가미한 면 소재와 함께 가볍게 채색된 패턴을 믹스하고, 팝아트의 대중적이면서도 신선한 아이디어에 의한 변화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06년 S/S 컬러 트렌드

2006 S/S Color Trend

Hue Tone	R	YR	Y	GY	G	BG	B	PB	P	RP	N
V											
S											
B											
P											
Vp											
Ltg											
L											
Gr											
DL											
Dp											
Dk											
D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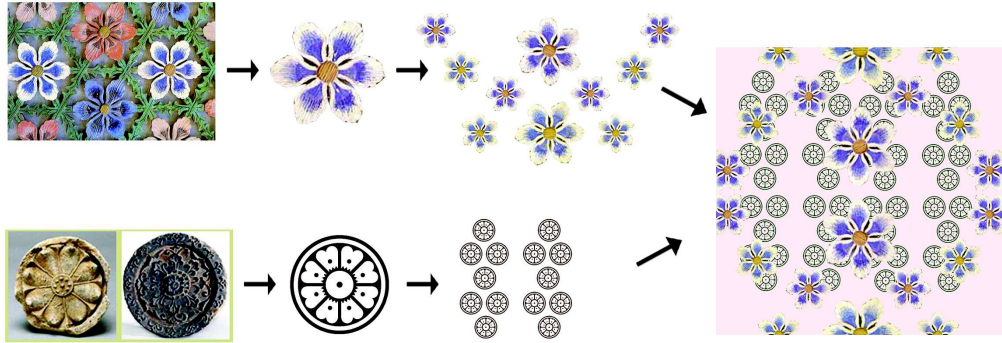
● 작품 제작 방법

본 연구자는 패브릭 디자인의 방법으로 D.T.P(Digital Textile Printing)를 선택 하였다. D.T.P는 기존의 날염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 기술인 멀티미디어 기법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D.T.P전용 CAD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직접 날염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텍스타일 원단을 특수하게 전 처리하여 잉크화된 프린팅 염료를 사용하여 텍스타일 전용 프린터로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을 출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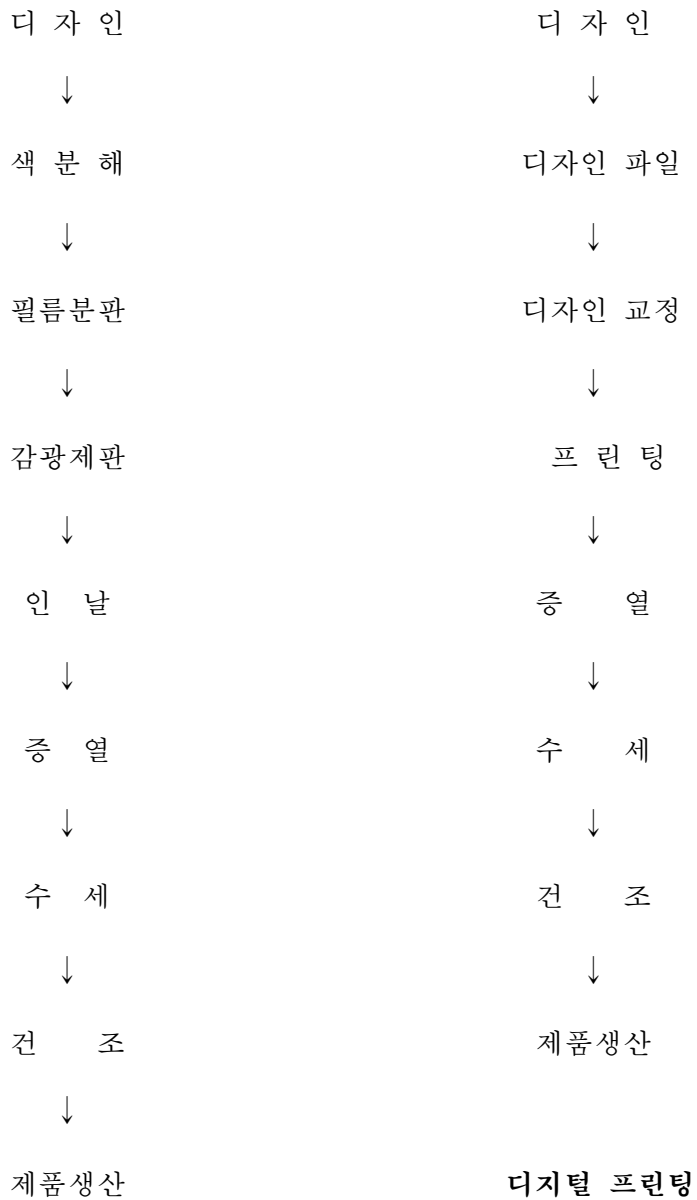
먼저 원하는 꽃살문 문양을 선택하거나 수작업으로 좀 더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스캐너를 통해 원고상의 색상을 각각 R. G. B로 판독하여 디지털 정보화시킨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화된 디자인은 컴퓨터에 입력되고 모니터 상으로 나타난다. 컴퓨터에 입력된 디자인은 장비를 이용하여 화면의 위치나 크기, 색상 등을 수정, 보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 편집 및 재수정 작업을 거쳐 전(前)이미지와 합성하기도 한다.

그 후 실사기에 명령을 내려 출력하기 전에 적절한 색상이 표현되었는지를 테스트 해본다. 실사 출력기로 보내어진 R. G. B 이미지를 CMYK(Cyan, Magenta, Yellow, Black)모드로 전환하며 다양한 조합과 분량의 잉크를 분사하도록 하여 출력한다. 출력이 되어 완성된 날염물은 증열 수세 과정이 필요하므로 꼭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만약 증열 수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날염된 색이 빠지거나 번져서 실패할 수 있다.

◎ 작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과정



● **아날로그 프린팅과 디지털 프린팅 과정 비교표**



아날로그 프린팅

2) 작품분석

【작품 1】 편린 I



면섬유(Cotton), 150 × 450cm, 2005

【작품 1】편린 I

재 료 : 면섬유(Cotton)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150 × 450cm
제작년도 : 2005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20-30대 신혼주부를 주 타겟으로 한 작품이며, 동양적인 모티브를 단순화 시켜 포인트로 풀어내, 실용성과 화려함을 추구한 작품이다. 화이트 톤으로 간결하면서 심플하게 꾸며진 신혼공간의 포인트로 화려한 스톨로 사용가능하다. 면(Oxford)을 사용하여 세탁이 용이하게 하였다.

꽃살문 문양을 라인으로 단순화 시켜 조금은 예전에 유행 했을법한 큰 꽃무늬패턴으로 과거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꽃살문 문양에서 사용되어지는 오방색을 화려하고 대범한 색상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청(靑)색은 2006년 S/S트렌드 컬러에 나타나는 신비로우면서 차가워 보이는, 어느 색과도 잘 조화를 이루는 채도가 높은 청록색(Turquoise Blue: BG1-70040)과 짙은 파랑색(Deep Blue: PB2-50060), 경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채도는 높고 명도는 낮은 보라색(Purple: P3-50100, P1-40080)으로 적(赤)색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인 핑크색(Pink: RP2-60110, RP2-80060)과 와인색(Red-Purple: R3-30100)등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20대 여성 취향에 맞게 발랄하고 경쾌하게 연출하고자했다.

얇은 면 소재를 사용하여 침장류로 제작, 사용 가능하고 또 소재를 면이 아닌 실크를 이용하여 여성용 스카프로도 제작 가능하다.



Y2-80010



P3-50100



P1-40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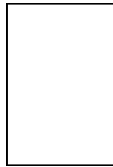
PB2-50060



RP2-60110



RP2-80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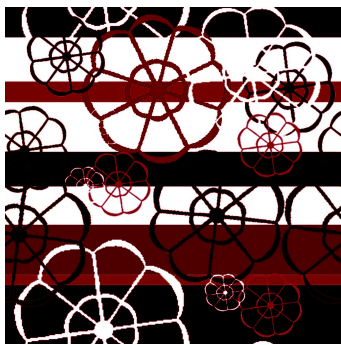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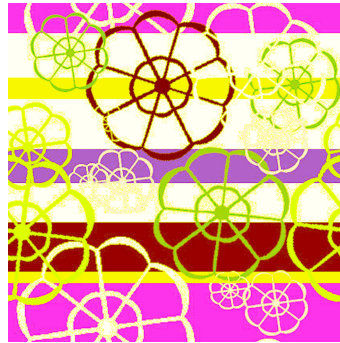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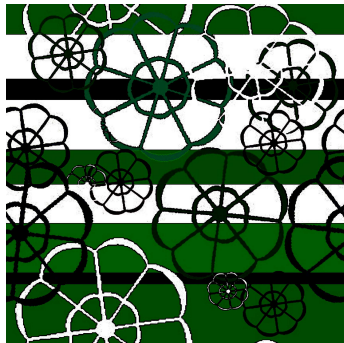
White



BG1-70040



R3-30100





【작품 2】 편린Ⅱ



면섬유(Oxford), 150 × 450cm, 2005

【작품 2】 편린 II

재 료 : 면섬유(Cotton)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150 × 450cm
제작년도 : 2005

서울 인근지역에서 전원주택생활을 하는 30대의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이 이 작품의 메인 타겟이다.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표현되도록 소박하면서 잔잔한 매화문양 꽃살문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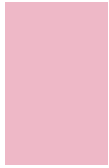
섬세한 여성적 느낌을 추구하는 30대의 기호에 맞추어 패브릭 벽지로 사용하도록 재질이 단단하고 가공되지 않은 내추럴한 소재의 면섬유를 사용하였다.

2006년 S/S 트렌드에서 보여 지는 순수함과 수채화 느낌의 부드럽고 밝은 컬러에 포인트를 주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패턴에 재미를 주었다.

꽃문양 색상은 원래의 꽃 창살에 사용되어지는 오방색이 본래의 색 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중 청(靑)색과 황(黃)색을 2006년 S/S 컬러 트렌드에서 살펴 보면 30대 커리어 우먼의 차분함과 냉철함이 느껴지는 색상인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짙은 파란색(Deep Blue: PB2-50060)과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살아가는 집에서 귀여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채도가 높은 원색에 가까운 노란색(Yellow: Y1-80120), 고급스러운 갈색(Brown: YR3-6005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적(赤)색은 바탕색과 그 위에 잔잔하게 깔려있는 문양을 젊은 소비자 취향에 맞게 과거와 다른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하여 사랑스러운 파스텔

톤의 핑크색(Pink: RP2-60110, RP2-8006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깨끗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 공간을 선호하는 30대 주부들을 위해 연출하였다.

면이나 실크 소재로 어린 여자아이 방의 스톨 커버로 사용하거나 수첩의 겉표지, 넥타이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가능하다.



RP2-80060



RP2-60110



YR3-6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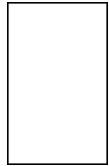
Y1-8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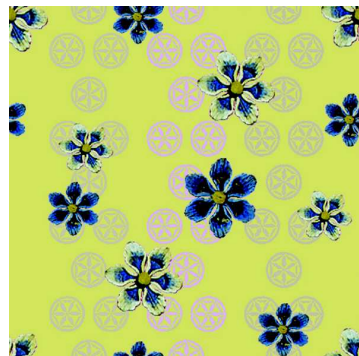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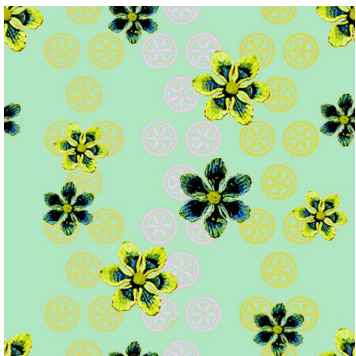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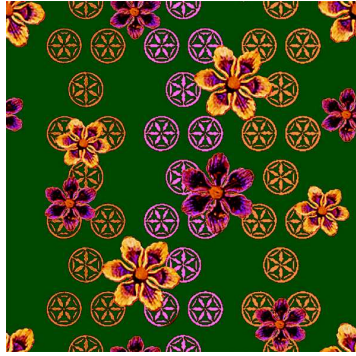
P1-40080



PB2-35065



White





【작품 3】 공준



면섬유(Oxford), 뒷커튼: 250×150cm(2), 앞커튼: 250×130cm(2),
쿠션: 40×40cm(2), 2005

【작품 3】 공존

재 료 : 면섬유(Oxford), 노방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뒷커튼- 250 × 150cm(2), 앞커튼- 250 × 130cm(2),
쿠션- 40 × 40cm(2)

제작년도 : 2005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컨셉에 맞춰 화려하지만 뭉치 모를 수
줍음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나타내 주었다.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단순하지만 원
색에 가까운 크고 화려한 색감의 꽃과 소박하지만 고운 색감을 담고 있는 작
은 꽃살문 문양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추상적 꽃무늬와 꽃살문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오방색의 청
(靑), 적(赤), 황(黃)색의 칼라를 현대적 감각과 2006년 S/S트렌드에 맞게 빛
바랜 듯 오래된 느낌이 나는 명도가 낮은 파란색(Blue: PB2-50060)이 산만해
보이기 쉬운 패턴을 시각적으로 차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색의
강렬함과 공간 연출을 하기에 꺼려지는 채도가 높은 빨간색(Red: R2-40140)과
노란색(Yellow: Y1-80120)은 2006년 S/S 트렌드인 복고적인 스타일을 연출하
기에 적합하다. 세 가지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반복되어, 깔끔하면서도 현대적
인 느낌을 나타내주고 화사한 원색이 청량감을 더해주고 현대적 세련됨과 아
기자기함을 동시에 만족하길 원하는 신혼부부의 컨셉에 맞게 디자인 하였다.

가볍고 살짝 비치는 질감인 노방에 실용성을 추구하는 면섬유를 덧대어 투
명함과 불투명함의 매치와 자연의 따듯함과 자유스러움이 담겨져 있다.

또 60수의 면으로 제작하여 땀의 흡수가 빠르고 세탁이 쉬운 침장류로 사용
가능하다.



Y2-90060



Y1-80120



YR1-80060



YR1-7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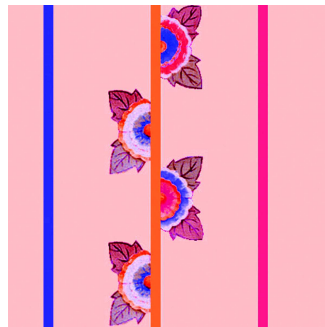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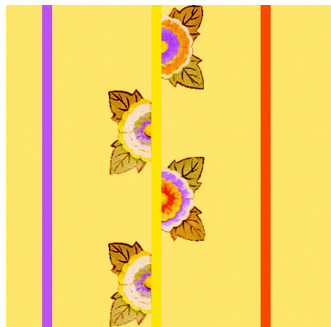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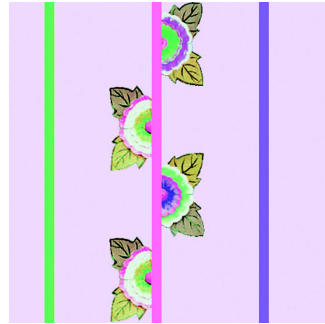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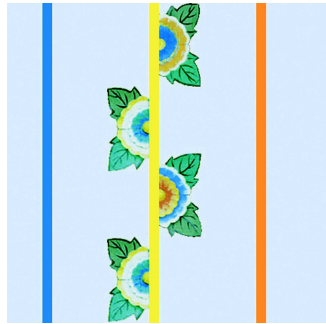
R2-40140



PB2-50060



GY3-60060



【작품 4】 아름다운 날들



면섬유(Cotton), 벽지: 200 × 100cm(2), 쿠션: 35 × 35cm(2), 2005

【작품 4】 아름다운 날들

재 료 : 면섬유(Cotton)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벽지- 200 × 100cm(2), 쿠션- 35 × 35cm(2)

제작년도 : 2005

20-30평대의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패브릭벽지 용도로 디자인하였다. 거실과 주방사이의 벽이나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면에 보이는 벽에 배치하여 공간을 조금 더 넓고,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에 적합하다.

새로로 놓여진 스트라이프 때문에 차분해 보이지만 발랄한 색상 구성과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꽃살문 문양의 디자인 구성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감과 행복을 만끽하게 해준다.

꽃살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오방색 중 황(黃)색을 2006년 S/S 컬러 트렌드에 맞게 어린 아이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노란색 (Yellow: Y3-85090) 계열의 은은한 파스텔컬러로 사용하여 아이들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과 미적인 면을 생각하여 신선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또 청(靑)색의 고유 컬러를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2006년 S/S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할 것 이라는 그린컬러 계열의 명도가 높은 연두색(Greenish Yellow: GY2-70100)으로 변화하여 사용함으로써 편안함이 느껴지게 하였다. 또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패턴에 고유의 색인 적(赤)색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색 느낌의 빨간색(Red: R2-40140)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생기가 넘치는 주거 공간을 꿈꾸는 어린아이를 둔 주부를 위해 연출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같은 패턴의 문양의 크기를 달리한 쿠션으로 집안 전체에 화사함이 느껴지는 소품으로도 제작하였다.

면섬유를 사용하여 공기가 잘 통하고 작은 얼룩은 부분적으로 세탁 가능하고 보온성의 효과까지 줄 수 있다. 앞치마, 슬리퍼 등의 생활소품이나 어린 소녀의 봄 원피스로 제작, 사용 가능하다.



Y4-90065



Y3-85090



Gy2-7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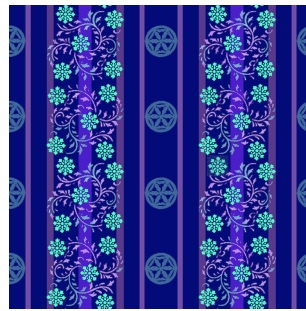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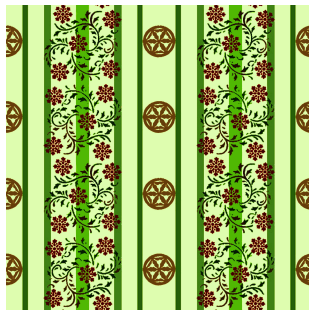
Gy3-60075



Y3-80100



R2-40140



【작품 5】 소박했던, 행복했던...



면섬유(Cotton, Oxford), 견섬유(Silk), 노방(Polyester)

커튼: 250 × 100cm(2), 밑보료: 200 × 120cm, 윗보료: 180 × 100cm,

베개: 45 × 25cm(2), 2005

【작품 5】 소박했던, 행복했던...

재 료 : 면섬유(Cotton, Oxford), 견섬유(Silk), 노방(Polyester)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커튼- 250 × 100cm(2), 밑보료- 200 × 120cm,
윗보료-180 × 100cm, 베개- 45 × 25cm(2)

제작년도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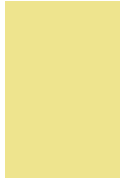
휴식을 위한 공간, 그 곳 만큼은 품격이 있는 클래식한 공간으로 꾸미길 원하는 50代 부부를 위한 침구류로 디자인 하였다.

2006년 S/S 트렌드에 어울리도록 과거에서 얻어온 문화적 영감을 꽃살문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탄생 시켰다. 꽃살문의 문양 중 아주 작은 모티브를 응용하여 2006년 S/S 트렌드에 맞게 원색의 대비가 확실한, 똑 떨어지는 꽃무늬로 디자인 하였다.

꽃살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황(黃)색은 꽃살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대적 감각에 맞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선호하는 클래식한 금색(Gold)으로 나타내주어 현대와 과거의 문화적요소를 믹스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해냈다. 오방색 중 청(靑)색은 2006년 S/S 컬러 트렌드의 메인 컬러인 청명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색감을 연출 할 수 있는 채도는 높고 명도는 낮은 아쿠아 녹색(Aqua Green: GY4-50065)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적(赤)색은 따뜻하면서도 가장 동양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채도는 높고 명도는 낮은 코랄색(Coral: R2-50120)으로 사용하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동양적이면서도 규칙적인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디자인 하였다. 안락하면서도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50代 주부들을 위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베개는 깨끗함과 자존함을 나타내는 백(白)색은 광택이 나는 회색(Grey: YR4-70015)으로 대체하여 차분함과 신비스러움이 느껴지게 하였고 여기에 액운을 물리쳐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적(赤)색 대신 다양한 연령대가 선호하는 사랑스러운 분홍색(Pink: RP2-50120)을 사용하여 클래식 하면서도 화사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매력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이끌어 냈다.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남성용 넥타이로 제작해 멋있는 양복에 포인트 역할을 하거나 면직물을 이용해 컵받침으로 제작하여 생활의 작은 활력을 주는 소품으로 이용 가능하다.



Y2-90060



Y1-70085



Y2-70010



Y1-80120



GY4-5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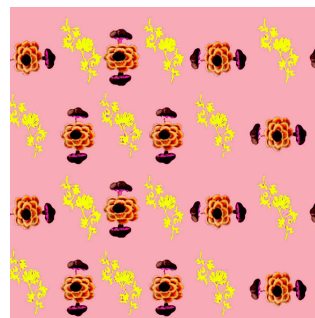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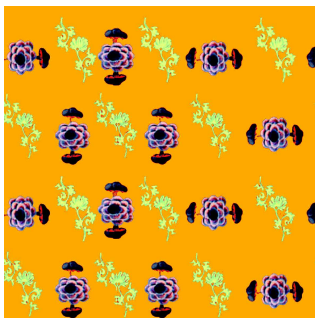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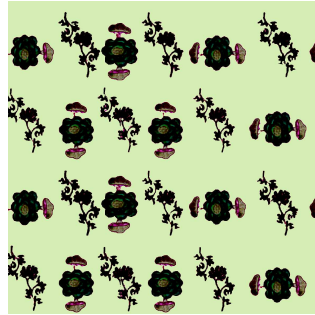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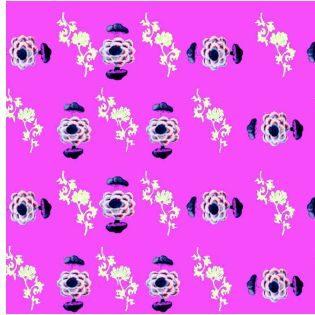
R2-50120



YR4-70015



RP2-50120



【작품 6】 흐르다...



견섬유(Silk), 노방(Polyester)

커튼: 250 × 100cm(2), 쿠션: 40 × 40cm(2), 2005

【작품 6】 흐르다...

재 료 : 견섬유(Silk), 노방(Polyester)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커튼- 250 × 100cm(2), 쿠션- 40 × 40c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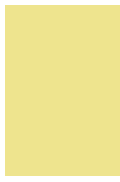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5

동양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30대 주부를 타겟으로 만든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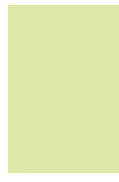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2006년 S/S 트렌드에 맞게 단순화 시킨 꽃살문 문양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자유로움과 여성적 우아함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하였다.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원단인 노방을 사용하여 수수하면서도 가공되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시킨다.

오방색의 황(黃)색을 어린아이들과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파우더 파스텔 색(Powder Pastel)의 하나인 노란색(Yellow) 톤으로 사용하여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소박한 자연주의와 결합하여 전원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청(靑)색, 적(赤)색, 황(黃)색의 컬러들 역시 파우더 파스텔 색(Powder Pastel)을 사용하여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적합한 채도와 명도가 높은 연두색(Yellowish Green: GY1-90046)과 모든 연령대가 선호하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컬러인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분홍색(Pink: YR1-90025), 오렌지색(Orange: Y2-90060)으로 재해석하여 순수함과 수채화 느낌의 부드럽고 밝은 컬러의 모란 꽃살문으로 단순화 시켜 2006년 S/S 컨셉에 맞게 우아함과 세련됨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하였다.

면섬유로 제작하여 어린이방의 벽지로도 사용 가능하고, 쉬폰 소재의 실크를 사용하여 여성용 스카프로도 제작 가능하다.



Y2-90060



GY1-90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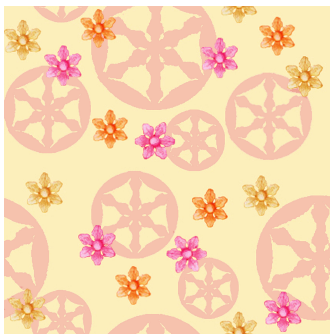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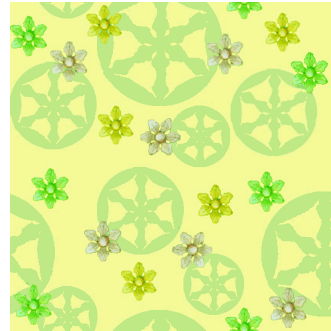
YR1-90025



R3-80060



Y2-30040



【작품 7】 기다립니다.



면섬유(Cotton, Oxford), 견섬유(Silk)

벽지: 200 × 100cm(3), 직사각스툴: 65 × 45 × 35cm,

정사각스툴: 60 × 60 × 60cm, 원스툴: 30 × 35cm, 2005

【작품 7】 기다립니다

재 료 : 면섬유(Cotton, Oxford), 견섬유(Silk)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벽지- 200 × 100cm(3), 직사각스틀- 65 × 45 × 35cm,
정사각스틀- 60 × 60 × 60cm, 원스틀- 30 × 35cm

제작년도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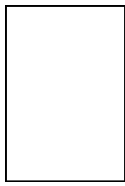
집안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30대 가정주부를 타겟으로 디자인 하였다.

2006년 S/S 트렌드에 맞게 자칫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기 힘든 꽃살문 문양을 단순화 시켜 자유롭고 순수한 동화적인 상상력을 자극하여 다양한 패턴과 장식적인 표현 효과를 나타냈다. 대중적이면서도 기능만을 강조한 딱딱한 공간이 아닌 자연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감각적 공간으로 디자인 하였다.

꽃살문의 고유 색상중 하나인 적(赤)색은 2006년 S/S 컬러 트렌드에 맞게 현대적 감각에 맞춰 가정주부들이 공간연출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를 머금은 파스텔 톤의 채도와 명도가 높은 핑크색(Pink: RP2-80060, RP2-60110)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진한 핑크색(Opera: RP2-50120)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하늘빛의 시원함을 담고 있는 청(靑)색은 투명하고 순수함을 담고 있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하늘색(Sky Blue: BG3-80040)과 연두색(Yellowish Green: GY2-70100)으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를 사용하였고 모든 집안의 구성원들 각각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공간을 연출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작은 얼룩도 손쉽게 세탁할 수 있는 실용성이 좋은 면섬유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위생과 건강에 이롭게 하였다.

앞치마로 제작 가능하며 어린이나 어른들을 위한 침장류로 제작 가능하다.



White



RP2-80060



RP2-60110



RP2-50120



Y2-80010



YR4-70015



BG3-80040



GY2-70100



PB4-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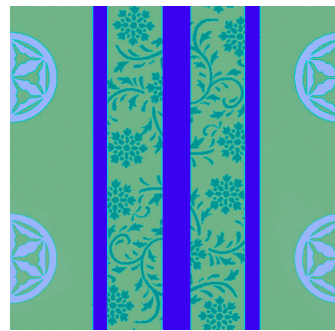
PB3-30100



PB4-25040



R2-40120



【작품 8】 고희



견섬유(Silk), 벽지: 180 × 110cm, 방석: 50 × 50cm(2), 2005

【작품 8】 고희

재 료 : 견섬유(Silk)

기 법 : D.T.P(Digital Textile Printing)

크 기 : 벽지- 180 × 110cm, 방석- 50 × 50cm(2)

제작년도 : 2005

스타일리쉬한 개성을 보이는 20대 싱글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인 하였다.

꽃살문 문양의 일부분을 단순화시켜 디자인한 잔잔한 꽃무늬의 패턴반복은 다분히 동양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을 줄뿐 아니라 현대적 감각과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식적 효과를 나타낸다.

꽃살문의 고유의 색인 청(靑)색과 적(赤)색을 2006년 S/S 컬러 트렌드에 맞게 자연의 색상에서 느낄 수 있는 청명함과 시원함을 가지고 있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하늘색(Sky Blue: BG3-80040)과 고급스러우면서도 분위기 있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양귀비 꽃 색(Poppy: R2-40120)으로 나타냈다. 또한 황(黃)색을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늘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채도와 명도가 높은 노란색(Yellow: Y3-85090)으로 사용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했고 화사한 색감의 대비는 적극적이고 유쾌한 20대의 성격을 반영하여 개성 있는 공간과 휴식 공간 연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실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거기서 오는 편안함은 여성적 우아함과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남성용 넥타이로 제작 가능하며, 면 소재를 사용하여 오리엔탈느낌이 나는 침장류로도 제작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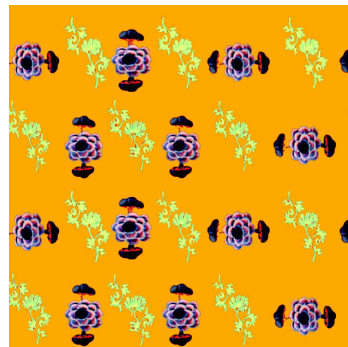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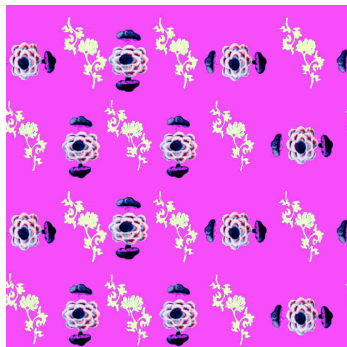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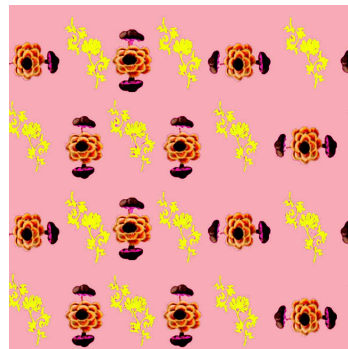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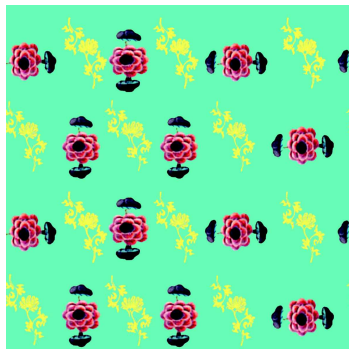
BG3-80040



Y3-85090



R2-40120



Ⅲ. 결론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대하는데 있어서 자기내면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시켜 객관화시킨다. 따라서 사물의 이미지는 그 자체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대상과의 결합,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질 수도 있다.

세계화 속에서 한국적인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전통적인 미를 연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세계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꽃살문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인 특성을 현대 정서와 감각에 맞게 실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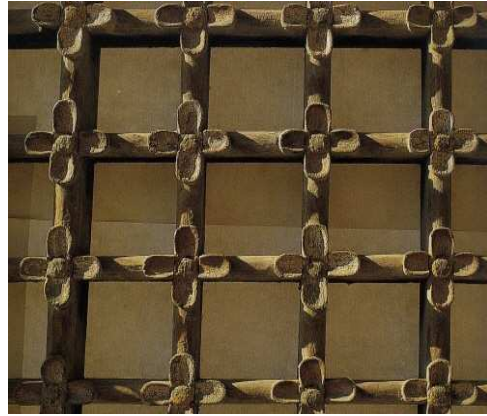
꽃살문에 나타난 꽃모양이 갖는 의미는 각기 다르며, 다양한 꽃 모양만큼 풍부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 꽃 살의 색채는 자연과 우주의 삼라만상에서 기원된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이 색채는 현대적인 감각에 잘 부합되어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꽃 살의 전통미는 현대의 미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꽃살문에 나타난 한국적인 미의식을 고찰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전통예술을 살려 예술성과 상업성을 고루 갖춘 우리만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독창적인 한국문화와 전통을 알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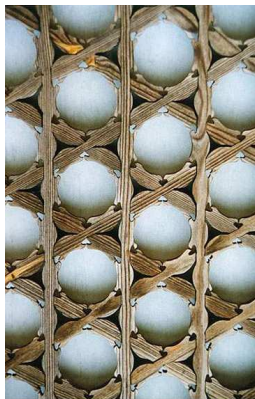
<도판1>정수사 대웅전 꽃살문



<도판2>범어사 독성전 격자매화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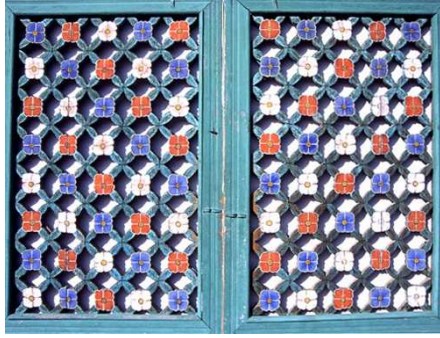
<도판3>쌍계사 대웅전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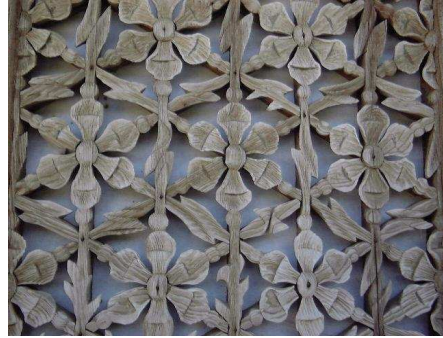
<도판4>내소사 솟을금강저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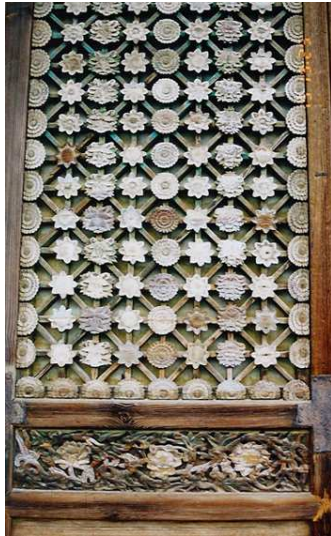
<도판5>남장사 극락보전솟을 모란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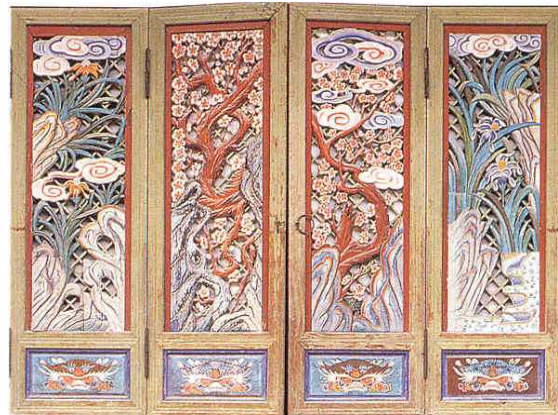
<도판6>신홍사 극락보전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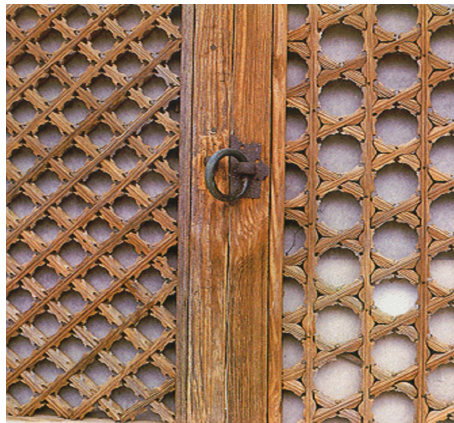
<도판7>불갑사 대웅전 솟을 금강저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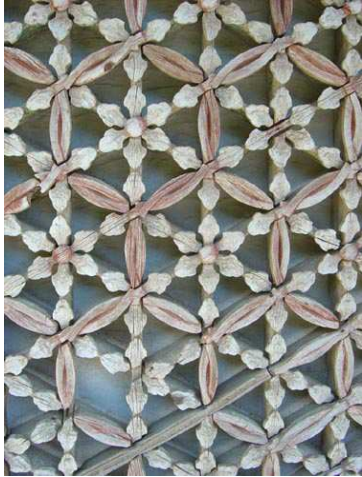
<도판8>통도사 대웅전 꽃살문



<도판9>동학사 대웅전 사군자 문살



<도판10>불갑사 대웅전 솟을 모란 꽃살문



<도판11>성혈사 좌협간 솟을 모란 꽃살문



<도판12>동화사 대웅전 어간 꽃살문



<도판13>내소사 솟을모란꽃살문



<도판14>용문사 대장전 솟을국화꽃살문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간행물

- 강 순 형, 『꽃 문 - 관조스님 사진집』 미술문화, 1996
- 관 조, 『사찰 꽃살문』 솔 출판사, 2003
- 김 영 기, 『외부공간에서 본 창살의 조형미』 디자인, 1979
- 신 영 훈, 『한국의 고 문양』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 1973
- 이 경 순, 『텍스타일 프린트 디자인』 미진사, 1994
- 임 영 주, 『창살문양의 현대적 도입』 월간인테리어, 통권21
- 장 인 기, 『한국건축대계Ⅳ - 한국건축사진』 보성출판사, 1985
- 전 명 옥, 『텍스타일 디자인 - 월간공예3권』 디자인하우스, 1999
- 주 남 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 차 용 준, 『전통문화의 이해』 전주대학교, 2000
- 최 순 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교재, 2002
- 최 하 립, 『한국인의 멋』 지식산업사, 1990
- 허 균,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2000

학위논문

- 김영중, “창살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1
- 박세은, “디지털텍스타일 프린팅을 이용한 텍스타일디자인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 우혜선,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5

이경연, “사찰창살 문양을 응용한 직물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홍영희, “한국 전통문살 조형에 관한 염색작품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ABSTRACT

**Fabric Design with the application of
Floral Design Lattice Door of Korean Temples
- Centering around My DTP Work -**

**Kim, So Hyu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the modern lives, which demand rapid changes and conformity, people crave for the time in past where lives were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Many recognize art as a luxurious item, which cannot be touched by mid level of society. However, if we look at our present everyday life, we find hidden values of art lives within. Through giving value to the each and every object in our lives, the negativity and arrogant view towards art will disappear.

To me, Floral Design Lattice Door of Korean Temples represents an inherited bridge from our elders to connects the part art to modern art. It signifies the simplicity of Korean beauty by holding the distinctiveness through enlightened modern pattern.

Instead of recognizing its pattern as only a way to divide the past and present way of decorating doors, this research incorporated the Floral Design Lattice Door of Korean Temples to modern practicality while the distinctiveness of hidden Korean values are preserved.

Many say that aspirating past is a way of retrogression however I consider it as a method to jump even further towards what we will face in the future.